202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오전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 □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1, 2번을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모두 '0점 처리'됩니다.
-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1) 제시문 (가), (나), (다)를 사랑의 형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2) 제시문 (라)의 ㉠이 믿고 있는 사랑을 제시문 (가)를 참조하여 추론하고, 이를 제시문 (다)와 제시문 (마)를 근거로 비판하시오.

제시문 (가)

플라톤의 저서 「향연(Symposium)」에는 회식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 돌아가며 그리스 신화에서의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중에 아리스토파네스는 인간은 오직 열정적인 사랑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는 신화적인 설명을 활용하여 사랑의 특징을 설명한다. “인간은 동그란 모양이었소. 등과 옆구리가 불룩하고 네 개의 손, 네 개의 다리를 가졌으며, 동그란 목 위에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얼굴이 달려 있었지요.” 두 명의 인간이 하나로 합쳐진 이들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고 힘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래서 이들은 신들에게까지 도전하였고, 이에 분노한 올림포스의 신 제우스는 이들을 둘로 쪼개 버렸다.

반으로 잘린 인간은 잃어버린 반쪽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품은 선천적인 사랑이 탄생했지요. 사랑은 인간이 잃어버린 반쪽을 되찾게 해 주고, 두 존재를 하나로 결합해 준다오.” 둘로 나뉜 인간이 잃어버린 반쪽을 되찾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설명한다.

제시문 (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즉 쾌락에 대한 추구를 존재의 원칙이자 목적으로 보는 철학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쾌락은 무분별한 욕구 충족에서 오는 쾌락이 아니고, 사치스러운 향락에서 오는 쾌락도 아니다. 이런 쾌락은 순간적이고, 고통을 남길 수 있으므로 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쾌락으로부터 멀어지는 쾌락의 역설을 초래한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중시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함이다. 이러한 상태를 평정심(平靜心) 즉 아타락시아(Ataraxia)라고 한다. 이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들의 쾌락주의를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참된 쾌락을 누리려면 우선 고통과 불안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고통과 불안은 우리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는 데에서 나온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아름다운 평온함을 방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열정 또한 이런 욕망 중 하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는커녕 그것에 얽매여 고통을 느낄 뿐이다.

제시문 (다)

주는 행위로서의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의 성격 발달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성격이 생산적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인간은 의존성, 자아도취(narcissism)적 전능(全能), 타인을 착취하려는 욕망, 저장하려는 욕망을 극복해왔고 자신의 인간적 힘에 대한 믿음, 곧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용기를 획득해왔다. 이러한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사랑에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보호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중략>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중략>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이해에는 여러 층이 있다. 사랑의 한 측면인 이해는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핵심으로 파고든다. 이러한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제시문 (라)

'이별 통보'가 화근이었다. 정 모씨가 남자 친구인 ㉠이 모씨에게 식당 안에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내자, 이 씨는 정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청은 22일 데이트 폭력 대응강화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데이트 폭력(연인 간 폭력)으로 살인을 저질렀거나 미수에 그친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28명은 구속됐다.

이 기간 전년 동기(4,166명) 대비 24.1% 늘어난 총 5,172명을 검거해 320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폭행・상해를 저지르고 검거된 인원이 3,7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포・감금・협박으로 699명, 스토킹 등의 경범죄를 포함한 기타 원인으로 491명, 성폭력으로는 162명이 붙잡혔다.

연령별로는 20, 30대(58.2%) 가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40, 50대(34.3%), 10대(3.7%)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29.4%)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회사원(19.9%), 자영업(10.6%)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80%는 여성이었다.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67.2%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등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14.8%), 체포・감금・협박(14.5%), 성폭력(2.9%), 살인(0.6%) 피해자 순이었다.

제시문 (마)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
남을 온기
움직이는 별
멀리 가는 날개

여러 계절 가꾼 정원
뿌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
풀에게는 풀여치
가을에게는 갈잎

귀엣말처럼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
서로의 바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

날마다 석양
너무 큰 외투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문태준, <우리는 서로에게>

[문항 1] ‘사랑과 폭력’에 대한 이해

1. 출제 의도

-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비교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분석력을 평가한다.
-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또 다른 하나의 현상에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면적 사고 능력과 통합적 논리력을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h>적용 교육과정</th><th>2015 개정 교육과정</th></tr>
<tr><td rowspan="2">관련 성취기준</td><td>1.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도덕</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생윤02-03] 사랑과 성의 의미를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 윤리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가족윤리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가족 해체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윤사03-03]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락의 추구와 금욕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td><td>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td></tr>
</table></td></tr>
<tr><td>2.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td><td>제시문(마)</td></tr>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2</td><td>[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d>제시문(가), 제시문(라)
제시문(마)</td></tr>
</table></td></tr>
</table>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명	미래앤	2018	67쪽	제시문 (가)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10명	천재교육	2019	113~114쪽	제시문 (나)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명	미래앤	2018	70쪽	제시문 (다)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명	미래앤	2018	70쪽	제시문 (라)	○
고등학교『문학』	류수열 외 7명	금성출판사	2019	139쪽	제시문 (마)	X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1]의 (1)	• [문항 1]의 (1)은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사랑의 세 가지 관점을 사랑의 형태와 사랑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문제임. • 제시문 (가)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오직 열정적인 사랑만이 유일하다고 보고, 그러한 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야 함. • 제시문 (나)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열정적인 사랑은 필수적인 욕구가 아니고 고통과 불안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진정한 쾌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랑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야 함. • 제시문 (다)에서는 성격 발달과 관련이 있는 사랑의 능력은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러한 사랑은 능동적인 방향일 때 긍정적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함.
[문항 1]의 (2)	• [문항 1]의 (2)는 제시문 (라)에서 ㉠이 믿고 있는 사랑을 제시문 (가)와 연결하여 추론하고 이것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문 (다)와 제시문 (마)를 활용하여 비판하는 문제임. • 제시문 (라)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요구에 폭력을 행사한 ㉠이 믿고 있는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 지배와 소유로 변질된 모습임을 추론해야 함 • 제시문 (다)에서 사랑은 나의 관점을 넘어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성장을 바라는 것임을 이해하고, 제시문(라)에서 서로 절반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고통의 원인임을 이해하여 ㉠의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함

4. 채점기준

[문항 1]의 (1)	
준거1	**사랑의 형태에 대해 제시문 (가), (나), (다) 세 가지 관점을 구분하여 비교할 것**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사랑은 그 형태가 열정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 제시문 (다)는 사랑은 성격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준거2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준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구분하여 비교할 것**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는 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제시문 (나)는 평정심, 아타락시아를 깨트리고 고통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 사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준거3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기술할 것**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는 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 제시문 (가)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나의 결핍은 채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해하고 있다. • 제시문 (다)는 사랑은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보호, 책임, 존경과 이해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문항 1]의 (2)	
준거1	**제시문 (라)의 ㉠이 믿고 있는 사랑을 제시문 (가)의 열정적 사랑과 관련지어 기술** • ㉠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일부라 믿고 있고, 소유했던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자신의 자신감도 사라지게 된다는 열정적 사랑의 관점을 지닌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준거2	**제시문 (다)와 제시문 (마)에서 열정적 사랑의 문제점을 찾아 ㉠의 믿음을 비판할 것** • 제시문 (다)는 존경과 이해가 없는 사랑은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상대의 입장이나 관점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랑은 공허하고 맹목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 제시문 (마)는 절반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고통의 원인이며, 큰 외투처럼 맞지 않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 •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의 사랑이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을 비판할 것.

5. 대학 제시 답안

(1) 제시문 (가), (나), (다)의 사랑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은 두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사랑의 형태’에 대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사랑을 열정적인 것이라고 본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사랑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사랑을 능력이라 말하거나, 그 능력은 성격 발달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한 것에서 사랑의 형태는 성격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사랑을 대하는 태도’에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는 사랑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제시문 (나)는 사랑은 ‘필수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고,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을 깨트리는 고통과 불안의 원인이 될 뿐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시문 (나)는 사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사랑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의 경우에도 ‘사랑의 방향’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제시문 (가)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사랑이란 나의 결핍을 채워 줄 반쪽을 찾아 결합하는 것이라 했다.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사랑을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보고, 사랑은 자신이 가진 것을 상대에게 보호와, 책임, 존경과, 이해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 글자 수 637자(공백 포함)

(2) 제시문 (라)에서 ㉠은 상대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하였다. 제시문 (가)에서는 사랑이란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되찾아 본래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다. 제시문 (가)를 참조하면 ㉠은 사랑하는 상대를 원래 자신의 일부였다고 믿고 소유했던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자신의 자신감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열정적 사랑의 관점을 지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존경과 이해가 없는 사랑은 쉽게 타락할 수 있다고 했다. 존경과 이해는 자신의 욕구와 관점을 넘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성장을 바라는 관심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제시문 (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절반이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랑은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너무 큰 외투처럼 맞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열정적인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왜곡될 때 쉽게 지배와 소유로 변질될 수 있다. 또 상대의 입장이나 관점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랑은 공허하고 맹목적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할 때 ㉠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왜곡되었고, 타인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결핍된 것으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 글자 수 613자(공백 포함)

[문항 2]

(1) 제시문 (가)의 정치 참여 목적을 고려하면서 의무 투표제 도입을 제시문 (나), [그림 1]을 근거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2) <표 1>, <표 2>, [그림 2]를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다), <표 3>, [그림 3]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개선 방향을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등을 주요 정치 원리로 삼는다. 이러한 원리는 중앙 정부의 구성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방 자치는 주민 주권에 근거하여 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 자치에 근거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

민주 정치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 정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많은 시민이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민들이 국가 기관을 신뢰하게 되어 정치 체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정치적 효능감: 시민이 공직자나 공공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자신감을 의미한다.

제시문 (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방 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20오스트레일리아 달러(약 1만 7,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처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정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4년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선거 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강제하는 것이 정치 참여의 장점을 알게 해 주고, 의회가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 선거 공약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릇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여 실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의무 투표제의 시행은 투표율을 크게 높혔다. 의무화 이전인 1922년에는 투표율이 59.38%였지만, 2013년에는 93.2%를 기록하는 등 의무화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율은 대체로 9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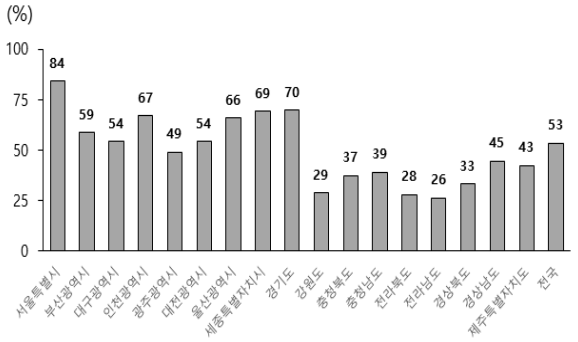
네덜란드는 191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비례 대표제와 함께 의무 투표제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투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며, 비례 대표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비례'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100% 투표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무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67년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는 의무 투표제 폐지를 권고했고, 네덜란드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970년부터 의무 투표제를 폐지했다.

제시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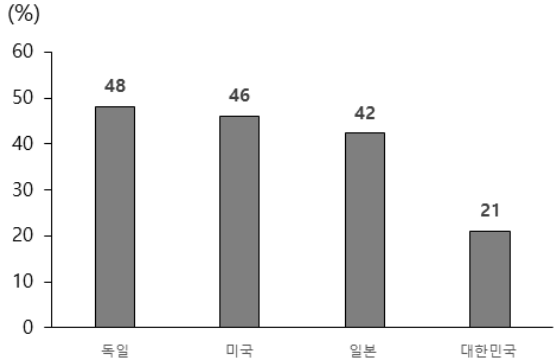
부산의 감천 문화 마을과 함평의 나비 축제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다양한 장소 마케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한 사례이다. 화천 산천어 축제, 보령 머드 축제, 이천 쌀 문화 축제,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등도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면 향토 예술과 같은 전통문화가 발전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아져 지방 자치 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녹차 생산지인 전라남도 보성은 특산물인 녹차를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자연 경관이 수려한 제주도는 제주 올레길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사회의 관광 소득을 높이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투표하지 않은 이유 응답 비율



[그림 2] 전국 각 시·도별 재정 자립도(행정안전부, 2018)



[그림 3] 주요국 지방세 비중(국회 입법 조사처, 2015)

<표 1> 정부 예산 사용 규모(기획재정부, 2016)

기관	예산액	비율
중앙 정부	172.3조	41.9%
지방 자치 단체	180.9조	44.0%
교육청	58.3조	14.1%
국가 전체	411.5조	100%

<표 2>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 비중(기획재정부, 2016)

년도	국세 비중	지방세 비중
2011	78.6%	21.4%
2012	79.0%	21.0%
2013	79.0%	21.0%
2014	76.9%	23.1%
2015	75.4%	24.6%

<표 3> 독일 공동세 세목별 배분 현황(2015년 12월 기준)

공동세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소득세	42.5%	42.5%	15.0%
근로 소득세	42.5%	42.5%	15.0%
법인세	50.0%	50.0%	-
거래세	51.5%	46.6%	2.0%
이자세	44.0%	44.0%	12.0%

*공동세: 과세를 통해 거두어들인 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방 정부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쓰는 세금

[문항 2] 지방자치의 문제와 개선 방향: 정치 참여와 지방 재정

1. 출제 의도

- 정치 참여 강화를 목적으로 의무 투표제를 활용한 투표율 제고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 1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제시문(가), 제시문(나), [그림 1]
	[12정법02-03]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제시문(다), [그림 2], [그림 3], <표 1>, <표 2>, <표 3>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정치와 법	김왕근 외 5인	천재교과서	2019	65쪽	제시문 (가)	X
정치와 법	정필운 외 8인	비상교육	2019	80쪽	제시문 (가)	○
통합사회	정창우 외 12인	미래엔	2019	174쪽	제시문 (나)	○
사회문화	손영찬 외 4인	미래엔	2019	108쪽	제시문 (다)	X
통합사회	정창우 외 12인	미래엔	2019	184쪽, 187쪽	제시문 (다)	○
정치와 법	모경환 외 5인	금성출판사	2019	70쪽	[그림 2]	X
정치와 법	이경호 외 5인	미래엔	2019	75쪽	[그림 3]	X
정치와 법	김왕근 외 5인	천재교과서	2019	70쪽	<표 1>	X
정치와 법	김왕근 외 5인	천재교과서	2019	70쪽	<표 2>	X
정치와 법	김왕근 외 5인	천재교과서	2019	66쪽	<표 3>	X

교과서 외	[그림 1]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204쪽, 210쪽	국어 동아출판 393쪽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고형진 외 7인	동아출판	2019	393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2]의 (1)	• 민주주의 및 정치 참여 의미를 활용해서 제시문 (나)에서 제시되는 의무 투표제를 비판하는 문제임(제시문 (가), 제시문 (나), [그림 1])
[문항 2]의 (2)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 재정 문제를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체계로 인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문제와 재정 자립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문제임(제시문 (다), [그림 2], [그림 3], <표 1>, <표 2>, <표 3>)

4. 채점기준

[문항 2]의 (1)	
준거1	**정치 문화를 등한시하고 국민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의무 투표제의 문제**
	• 의무 투표제는 낮은 투표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투표 불참 • 정치문화가 낮은 투표율의 근본 원인이므로 강제 투표가 정치참여의 근본 해결책이 아님
준거2	**겉으로 드러나는 투표율만 강조하는 의무 투표제의 문제**
	• 의무 투표제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투표 의향이 없는 사람도 강제로 투표하게 함 • 이로 인해 의미 없는 투표가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묻지마식 투표, 무효투표 등으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 발생
준거3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무 투표제의 문제**
	• 민주주의의 원리는 주민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 강조 • 투표를 강제하는 의무 투표제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여 비민주적

[문항 2]의 (2)	
준거1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아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제약 문제**
	• <표 1>과 <표 2>는 지방정부의 총지출에 비하여 자체 재원이 부족 • 중앙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여 지방 자치 단체 자율적 기능 제약 • 국세 중심의 조세 체계에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준거2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격차 문제**
	• 낮은 재정 자립도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가 심각한 상황 •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일의 공동세 등과 같은 재정자립도 격차 해소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 수립·운영으로 재정자립도 개선 필요

5. 대학 제시 답안

(1) 제시문 (가)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의무투표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민주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다. 첫째, 의무 투표제는 낮은 투표율의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다. [그림 1]는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문화가 낮은 투표율의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강제로 투표만 하게 한다고 해서 제시문 (가)의 정치 참여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둘째, 겉으로 드러나는 투표율만 높이는 의무 투표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투표 의향이 없는 사람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여 묻지마식 투표나 무효 투표 수를 늘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의무 투표제는 민의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셋째, 민주주의 원리에서는 자발적 참여와 개인의 권리로서 투표를 강조한다. 따라서, 의무 투표제와 같이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민주적이다.

※ 글자 수: 530자(공백 포함)

(2) <표 1>, <표 2>는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아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지방세보다 국세 중심이어서, 지방 자치 단체는 독자적 재원이 부족해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지방 자치 단체들이 중앙 정부 요구에 제약되어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 3]의 다른 국가들처럼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이 열악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하여 <표 3>의 독일에서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집행하는 공동세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시문 (다)에서와 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의 지방 자치 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 브랜드 구축, 관광 마을 조성 및 지역 축제 등의 노력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 글자 수: 620자(공백 포함)